

국제 유가전망과 대응

석유매장량 한계도달 가격인상 불가피 대체에너지 개발, 소비구조 합리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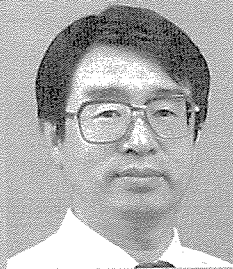
고유가시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고유가시대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위기상황이 도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차분히 관망하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것이 2차례의 석유위기를 겪고 난 이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준비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간의 차이이다.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명암이 확실히 구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에 관한 한 준비하지 못한 자에 속한다. 준비하지 못한 자가 갖춰야 할 정책안은 준비한 자의 정책대안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단기적인 대안도 중요하지만 예고된 위기를 대처하는 길은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길 밖에는 없다. 성급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평소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본고에서는 앞으로의 국제 유가의 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최근 국제 유가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걸프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유가급등의 에너지 인상 일지를 살펴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아라비아안 라이트/ 두바이 기준으로 1973년 1차 오일쇼크시 배럴당 2달러 하던 것이 약 3개월기간중 배럴당 10달러로 상승했으며, 1979년 2차 오일쇼크 시에는 배럴당 13달러 하던 것이 약 9개월 동안 배럴당 30달러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1990년 걸프전 때에는 배럴당 15달러가 약 3개월 동안 배럴당 35달러까지 인상된 바 있다. 그러던 것이 최근의 국제유가는 1999년 초 배럴당 10달러 수준에서 약 2년간 가까이 계속 고공행진을 지속하여 배럴당 30달러 수준을 웃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유가급등의 요인은 대략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석유재고의 대폭적인 감소 발표가 직접적인 요인이다. 지난 8월 25일 현재 원유는 전년대비 약 2천8백5십만배럴(-10%) 감소되었으며 난방용 경유는 약 2천8백8십



金 鎮 五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만배럴(-20%) 감소하였다. 겨울철 소비가 늘어날 현시점에서 단기간의 재고보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미국은 고유가 행진을 막는 방안으로 SPR(전략비축유)방출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에 발표된 원유와 난방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3백만배럴 이상 감소된 것과 정유소가동률 저하 등이 유가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동북부지역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저온현상의 영향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동 지역 난방유 재고는 30% 이상 줄어든 상황으로 공급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둘째는 시장안정을 위한 OPEC의 증산의지가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증산여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이 현 유가수준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증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우디 나미미 석유장관은 지난 10월 걸프 산유국 장관회담에

서 원유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하여 사우디 독자적으로라도 증산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OPEC 바스켓가격이 30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자동 증산요건인 20일 연속 OPEC 바스켓가격 28달러가 충족될 전망이기는 하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셋째는 선물시장의 투기수요 확대가 하반기 이후 유가급등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제품공급 차질과 OPEC의 대규모 증산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연말 유가상승을 노리는 국제 투기성 자금들이 상품선물시장으로 몰려들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사태가 전쟁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현 중동사태는 이스라엘 주변 아랍국가들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 가능성 때문에 중동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석유시장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가격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격안정의지, 시장신뢰확보 실패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111차 OPEC 총회가 열렸다. 주요 합의점은 10월 1일부터 80만b/d 증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80만b/d의 증산규모는 시장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장분석 전문가들은 추가증산으로 인한 가격 인하폭이 불과 2~3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산유국들이 이미 추가 증산의 5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물량은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OPEC 회원국들의 생산능력 한계 때문에 추가증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OPEC 11국 회원국 중에서 추가증산 여력이 충분한 나라는 사우디, 쿠웨이트, UAE 3개국 뿐이다.

결론적으로 OPEC 증산결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안정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특히 미국시장에서의 가격폭등 장세가 증산결정 이후에도

〈표〉 미국의 석유재고

(단위 : 백만 배럴)

연 도	2000. 8. 25	2000. 7. 28	1999. 8	증 감	
				전월대비	전년대비
원유	286.7	284.1	315.2	+2.6	-28.5
휘발유	196.4	206.3	200.6	-9.9	-4.2
경유	112.4	110.7	141.2	+1.7	-28.8
상업용 소계	958.5	956.5	1,046.8	+2.0	-88.3
정부비축(SPR)	571.1	569.5	574.9	+1.6	-3.8
총계(SPR 포함)	1,529.6	1,525.9	1,621.6	+3.7	-92.0

자료 : DOE/USA, 2000, 9

〈표〉 세계 석유수급 밸런스(단위 : 백만 배럴)

연 도	1999	2000			2001				
		3/4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석유수요	74.7	75.5	78.4	75.7	77.3	75.7	77.1	80.2	77.5
석유공급 (OPEC)	74.1 (26.6)	76.8 (28.2)	78.5 (29.0)	76.6 (27.8)	78.6 (29.0)	78.2 (29.0)	78.4 (29.0)	79.1 (29.0)	78.5 (29.0)
수급차이	-0.6	+1.3	+0.1	+0.9	+1.3	+2.5	+1.3	-1.1	+1.0

자료 : IEA, oil Market Report 9월호에서 수요 및 비OPEC 생산 전망 참조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석유수요는 1년 이상 계속 되어온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1년 상반기까지 수요증가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연평균 석유수요의 경우, 9월 현재 예상수요가 1월 전망치 대비 약 1백60만 b/d 수요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에는 석유수요가 전년 대비 2.3%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수요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석유 생산은 비 OPEC지역, 특히 구 소련지역과 서아프리카지역 및 미주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IEA는 전망하고 있다. 2001년 OPEC 원유공급은 2천9백만b/d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OPEC의 일상적인 초과 생산형태와 이라크의 최근 원유생산 동향을 감안할 경우 OPEC이 산유량을 조정하지 않는 한 초과공급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기 세계 수급밸런스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에 OPEC이 산유량을 축소 조정하지 않는 한 큰 폭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내년 상반기 동안 소비국들은 충분한 재고물량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유가격은 OPEC 총회 합의에 따라 금번 80만 b/d 추가증산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석유수급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 원유가격은 여전히 미국에서의 석유재고 감소의 영향으로 특히 뉴욕을 포함한 동부 지역에서 겨울철 혹은 도래시 난방유 수급차질에 대한 우려와 산유국의 시장안정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등락장세가 지속될 예정이다.

2001년에는 상반기 평균 약 200만 b/d의 초과 공급영향으로 원유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소비국의 석유재고 상황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유가의 추가 하락세가 예상된다. 두바이 원유기준 국제유가는 2001년 연평균 배럴당 \$26 수준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원유 1\$ 상승 국제수지 7.5억\$ 감소

국제 유가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국내 경제의 물가상승과 생산위축 등 성장둔화가 우려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원유 1달러 상승시 GDP는 0.1%P 감소하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15%P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은 1억7천만달러 감소하며 수입은 5억8천만달러 증가해서 결국 국제수지는 7억5천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은 도로운수, 기타 운수, 석유화학, 자동차 등이다. 이들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해외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생산량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미국 등 중심 수출시장의 경기하락시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배가된다. 연착륙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전 세계적인 스태그네이션도 가능하다는 우려도 있다.

앞에서 국제유가를 전망해 보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의 지속을 가정하여 판단한 자료에 불과하다.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의 가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석유위기의 성격과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별 대책이 필요하다.

〈표〉 시나리오별 대책

연 도	2000		2001	비 고
	3/4	4/4	1/4	
시나리오Ⅰ	27.78	27.50	27.0	동절기 동안
시나리오Ⅱ	27.78	32.00	28.0	고유가 지속
시나리오Ⅲ	27.78	35.00	32.0	연중고유가 지속

① 시나리오Ⅰ은 미국 정부의 SPR방출 또는 산유국 추가 증산으로 석유재고 상황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를 가정한다.

② 시나리오Ⅱ는 미국 정부의 SPR방출에도 불구하고 혹한 등의 요인으로 난방유 공급의 심각한 차질과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가정이다.

③ 시나리오Ⅲ은 중동지역 군사적 공격행위의 발생이나 원유수출금지 등 단기 비상사태가 발생한다고 보는 가정이다. 이때 두바이원유의 유가의 전망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시나리오Ⅱ의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배럴당 35~36달러, 시나리오Ⅲ의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배럴당 38~40달러 수준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나리오Ⅰ의 경우 위기사태로 규정할 수 없으나 시나리오Ⅱ와 시나리오Ⅲ의 경우 분명 위기사태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석유위기사태 발생 시에는 다소 다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시나리오Ⅱ의 상태를 석유위기 1단계로 한다면 ① 유가 완충기능의 신속적 운영, ② 소비절약 등 단기 수

요관리 대책의 추진 ③ 정부내 석유류 수급안정대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반면, 시나리오Ⅲ의 상태를 석유위기 2단계로 본다면 이때는 ① 정부 및 민간 비축 석유 방출 ② 긴급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 실시 ③ 범국민적 홍보강화 ④ 유조선 안전운항 대책 수립 ⑤ 국제 협력을 통한 석유 유통 추진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고유가시대의 도래는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여져야 할 명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가변동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유가 1달러만 인상되어도 이로 인해 GDP감소, CPI상승 그리고 수출감소, 수입증가 등 국제수지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식이 성립되어진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처방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것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전자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해 나가는 일이고 후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에너지 소비구조의 합리화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앞으로 석유를 위주로 한 화석연

료는 매장량의 한계로 인하여 수급상의 균형이 깨질 것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공급중단 또는 가격인상 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개발된 제품을 빠른 시간 내 에너지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석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당장 경제성이 없는 대체에너지를 시장에 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의 정책의지가 분명하다면 미래를 바라보고 대체에너지 사용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보급량이 늘어나면 규모경제의 이익도 실현되어 빠른 시간내 화석연료와 경쟁 가능한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 2020~2030년경까지 화석연료사용은 최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하강추세를 이룰 것으로 에너지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적어도 2050년까지 대체에너지가 주중에너지 역할을 담당할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50년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나라와 없는 나라는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 온갖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산·학·연이 적극 협력해 나가는 방법만이 살 길이다.